

## 잃어버린 자연보존의 역사를 찾아<sup>1)</sup>

강 상 준<sup>2)</sup>

충북대학교 명예교수·협회 충북지부장

### 자연보존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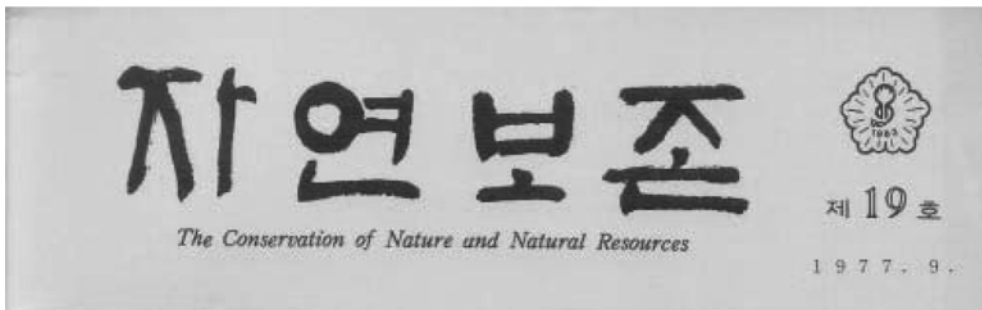
1970년대만 해도 출판물의 홍수시대인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읽을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본 협회의 계간지 “자연보존”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읽을거리의 하나로 저명인사들의 교훈적인 글, 희귀한 자연생태계

의 소개, 자연 수상 또는 수필 등이 게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의 하나였다. 이런 유명세를 탔던 “자연보존” 지령이 2010년 9월에 벌써 150호가 되었다니 세월의 빠름에 놀랄 뿐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자연보존”의 제자(題字)는 당대 역사상 손꼽히는 대 서예가이



한국자연보존연구회 발행 “자연보존 제2호(1970년 10월)”. 동교 민태식 교수 휘호



(사) 한국자연보존협회 발행 “자연보존 제19호(1977년 9월)”. 서봉 김사달 교수 휘호

1)In the Search for a Lost History of Nature Conservation

2)KANG, Sang-Joon, Emeritus Pr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Chungbuk Chapt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mail: kangsj@chungbuk.ac.kr

며 국민학교만 졸업했으나 의사와 교수로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었던 서봉(西峯) 김사달(金思達) 박사님이 쓰신 휘호이지만, 창간호에서 부터 제 10호까지의 제자는 동양 철학자이며 서예가인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었던 동교(東喬) 민태식(閔泰植) 박사님의 휘호이다.

내가 오늘의 (사)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를 알게 된지는 꽤 오래 되었다. 1966년 봄 대학원에 입학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옛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실험실에 있으면서 지도교수님(생물교육과 김준민 박사)의 심부름으로 종로구 동숭동 옛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식물학과와 동물학과에 가끔 들락날락하면서 부터였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보호의 연구와 활동의 시작은 국제자연보존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의 권고에 따라 1963년 12월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KCCN, 위원장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조복성 교수)”가 창립되어 국내 생물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자연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 강연회를 전개하면서 자연보호 사상을 계몽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때 나는 대학생이어서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이 위원회는 1965년 8월 “한국자연보존위원회”란 이름으로 개칭이 되고 또 그 2년 뒤인 1967년 12월 “한국자연보존연구회(이사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물학과 강영선 교수)”로 된 이후의 몇 가지 일을 기억한다. 1969년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계속 우리나라의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다가 1974년 2월 시·도지부를 설치하면서 (사)한국자연보존협회로 또 다시 개칭이 되었다.

(사)한국자연보존협회의 전신인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1965년~1966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e)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3년간의 치열했던 한국전쟁(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다소 안정이 되었다. 정전 후 10여년이 흐른 1960년대 중반이 되자 한반도에서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66년 10월부터 1968년 6월까지 3년 동안 휴전선 일대에 대한 장기 공동학술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학술조사의 한국 측 파트너가 바로 (사)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의 전신인 한국자연보존연구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때 연구비를 제공한 스미소니언 연구소로 부터 Dr. Tayler가 파견되었는데 동물학과에서 제공한 연구실에 상주했으며 애송이 대학원 학생이었던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은 가끔 그를 연구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식물생태학 분야를 맡으셨던 김준민 교수님의 연구보조원이란 임시직(?)으로 몇 지역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야외 생태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년간 실시된 연구 결과물은 미국으로 보내졌고 그 평가에 따라 계속 연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더 이상의 지원금이 없어서 조사는 계속할 수 없었다.

그 이전에도 당시 문교부의 후원으로 한

라산·홍도 및 설악산 일대의 학술조사 등은 있었지만, DMZ 학술조사의 연속선상에서 그 후에도 협회 자체로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을 선정, 해마다 조사를 하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면면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기금 마련의 숨은 이야기

전 국토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했다. 자연보호 학술 강연회와 세미나도 개최했고, 자연보존사업 기금 모으기 바자회도 열어 보았고, 소양호, 안동호, 팔당호, 대청호 등에 담수치어 방류 행사도 실시했고, 자연보호 사진전도 개최하였으며, 희귀식물 자생지 복원 행사도 하면서 협회의 홍보는 물론 기금 마련에 온 힘을 쏟아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1974년 5월 15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제 5, 6, 7, 8, 9대)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협회의 초대 총재로 추대를 하였는데 제 29회 광복절 기념식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영면하시자 1976년 5월부터는 대통령의 영에 박근혜양이 제2대 총재로 추대되었다. 육영수 여사님을 총재로 모시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부인께서는 1938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시어 죽향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상경하여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가 설립한 당시 서울의 명문 사립 학교인 배화고등여학교에 6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하셨다.

영부인의 학창시절에 배화고등여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미국인이었으나 한국인 최초로 1940년 2월 10일 제8대 교장에 취임하신 분이 식물분류학자인 이덕봉 선생님이셨다. 이덕봉 박사님은 후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다시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 직

을 마무리 하신 뒤 1974년부터 1982년까지 8년간 본 협회 회장을 맡으시기도 하셨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해서 영부인께서는 과거 배화고등여학교에서 한국인의 얼을 심어주셨던 존경하는 은사이시며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덕봉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신 모양이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덕봉 교수와 연락이 닿았던 것이다.

한편 경희대학교 교수이시면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본 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원병오 박사님의 공이 매우 컸다고 듣고 있다. 원병오 교수님은 1953년부터 3군단 포병사령부 박정희 사령관의 전속부관(중위)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였었는데, 그의 현명함과 성실성에 매료되어 육 여사로부터 사위가 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한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자연보존 지령 100호 특집호. 원병오: 자연보존지 100호에 즈음하여). 그 후 사위는 원병오 교수가 아닌 한병기씨가 되었고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뉴욕 총영사관 영사와 후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알고 있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났던 그 살벌한 시대에도 전속부관을 지냈던 원병오 교수는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으며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기 전 까지 청와대를 자주 방문하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사전에 육영수 여사는 이덕봉 교수님과 원병오 교수님을 만나 도와드릴 일이 없겠느냐는 하문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여, 청와대로 모시려고 하는데 두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자연보존협회 임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일정이 정해진 후 본 협회의 이덕봉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사들 29명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청와대가 어디라고? 서슬이 퍼런 그 시대에 청와대에 들어간다

는 것은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무서웠을 것이다.

외부인 접견실에 들어가서는 지정된 좌석에 부동자세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곳곳이 앉아 있었다.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께서 들어오시어 참석한 29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자리를 잡아 앉으시자 더욱 몸이 움츠러들어 동태(?)같이 얼어버렸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긴장감을 없애려고 몇 마디 농담(?)을 하셨다고 한다. 그 자리에는 박 대통령께서 3군단 포병사령관으로 계실 때 전속부관이셨던 원병오 교수(경희대학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대통령: “원 교수!(사실은 비공식석상에서  
는 원군! 이라고 하셨단다) 나도  
박사학위 하나를 따야겠어”.

원 교수: “각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통령: “나는 농촌 현황을 둘러보러 자주  
농촌에 내려가 보는데 까치란 높  
을 보면 미루 나무나 느티나무와  
같은 높은 나무에만 둥지를 틀고  
있거든? 이놈들이 왜 높은 나무에  
만 둥지를 트는지를 연구할 터이  
니 박사학위 하나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곳에 참석했던 모든 협회 이사들이 크게 파안대소 하면서 긴장을 풀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순간적인 센스에 다들 놀랐다고 한다.

분위기가 평온해지고 무르익자 협회 임원들은 기금이 없어서 자연보호활동과 연구에 애로가 있다는 뜻의 의견을 말하자;

대통령: “자연보호는 나라 사랑이지요.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 영부인과 이덕봉 교수와의 인연 그리고 박 대통령과 원병오 교수와의 인연 등으로 육 여사를 통해서 1차로 1천만원을 협회로 보낸 뒤, 1975년 국고 보조금 1억원을 산림청을 통해 보내왔고, 2년 뒤인 1977년 또 1억원의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거액의 자연보호 연구기금을 지원해 주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생태계의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본 협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 하겠다. 세월이 지나 그 기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 과실금만으로는 충분한 연구지원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당시의 2억원이란 거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1960년대 초 강남의 땅값은 평당 90원~120원이었고 신사동의 땅값은 평당 200원이었다고 한다. 2억원이면 강남의 땅 수십 만평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이다. 현재 강남의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전후를 호가한다니 50년만에 무려 15만 배가 오른 셈이다.

이런 거액의 지원금은 당연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처음의 감사기관은 문화공보부였으나 그 후 내무부 산림청으로 바뀌었으며 1998년 2월 24일 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전 한서대학교 이은복 부총장의 전언).

## 자연보호 운동의 시작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보아왔던 표어(標語) 하나가 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것이 그것이다. 어떤 일인지 요즈음은 오히려 “사람은 자연훼손(?) 자연은 사람보호”로 바뀐 것 같아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아날로그 시

대였던 1970년 중반 이후 산 입구마다 도로  
변 마다 세워져 국민들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는데 큰 몫을 했던 자연보호 입간판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는 식당이나  
모텔 등의 현란한 디지털 시대의 간판이나  
현수막 등이 자리바꿈으로 서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널리 알려진 이 표어 “사람은 자연보호 자  
연은 사람보호”의 사연에 대해 알고 있는 사  
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초 대한  
적십자사에서 제2회 환경 표어 전국 공모전  
이 있었다. 이 때 청주시에 있는 청주여자상  
업고등학교 1학년 이금열 학생이 이 표어로  
충청북도 예선에 응모를 했으나 그만 예선  
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떤 한 심사위원이 탈락시키기는  
너무도 아까우니까 등의로 출품하자고 하여  
‘덤’으로 중앙에 보내졌던 것이다. 그제 최우  
수작으로 당선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에게 익숙한 표어가 된 것이다. 청소년 적십  
자 회원들은 이 표어를 거리에서 배포하면  
서 새집 달아주기, 나무사랑 표찰 달아주기  
운동을 벌였다. 어쩌면 자연보호운동은 이  
땅의 어린 청소년들이 앞장을 섰던 것이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역사적 과정에서 1977  
년은 기적적인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977년 10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연보  
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 나가기 위해 정  
부 내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고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민  
간단체도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이 운  
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  
서와 협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런 지시가 나오기까지에는 그동안 음으로 양  
으로 본 협회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  
다. 그래서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自然  
保護』라는 친필 휘호를 1976년 4월 23일  
본 협회에 하사해 주셨으며 그 진품은 협회



<자연보호운동 발생지점>이라는 안내판-1977년 9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북 구미시 금오산 중턱 400m 지점에 위치한 대혜폭포(영금폭포)에 도착하자 깨어진 병조각과 휴지가 날려있는 것을 보고 “자. 우리 청소작업부터 하지”라고 말하면서 비위틈에 박힌 유리조각을 일일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자연보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출처: 네이버 및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국에서 잘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 11월 5일 자연보호 궐기대  
회에서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세찬 물  
결 속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  
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질서와 조  
화를 해치지 않고 자연을 아끼며 절도있게  
이용하는 슬기를 터득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 강산, 우리 자연을 내 몸같이 아끼고  
보호하는 정신은 바로 국토를 지키고 나라  
를 사랑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애  
국심인 것입니다.”고 하시었다.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自然保  
護憲章)』 선포식이 있었다. 선포식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국민적 슬기를 모아  
제정, 선포하는 자연보호헌장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몸에 익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산 행동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시  
었다.

본 협회의 계간지인 “자연보존”지에 1993  
년 12월(제84호)까지는 『자연보호헌장』이  
항상 실리어 있어서 쉬이 접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본 협회보다 14년 후인 1977년 10월 28일 창립된 현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의 계간지인 “자연보호”지에는 지금도 매 호마다 게재되고 있어 본 협회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니 본 협회에서도 다시 게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1980년대 초 전후에 각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자연보호 헌장탑』을 세워 자연보호운동의 지표로 삼아 왔으며 환경윤리를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훼손이 되거나 마모 혹은 글



청주시 우암산 용화사 입구에 서있는 『자연보호 헌장탑』. 무성한 풀이 탑 주위를 덮고 있으며 탑의 글지에는 먼지가 끼어있고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도 탑이 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계양산에 설치된 입간판 『환경은 깨끗이 미래는 아름답게』. 낡고 오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자가 보이지 않은 탑, 수풀이 우거져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탑이 있어서 오히려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한다. 환경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자연보호의 최후 상징성인 이 탑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후손들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71년도부터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Green Belt)라는 지역을 설정한 바 있다. 즉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8차에 걸쳐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린벨트의 제한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큰 불편이 있어 줄곧 해제가 요구되었지만, 22년 동안 지속되다가 1999년에 해제되기 시작하여 2003년 기준으로 지금은 4146,5 km<sup>2</sup>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해당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민원을 해소해 주는 큰 효과도 있었지만 자연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생물의 서식처를 제한하거나 생태통로의 단절을 초래하는 역 효과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 “자연보존”지의 제자리 찾기

1977년 10월 28일 민간기구인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현 자연보호중앙연맹)가 창립되었는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식물학과 이민재 교수가 초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3대 위원장이 되었으며, 그 역할은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국민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었고 계간지인 “자연보호”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시 국민홍보용의 계간지인 것이다.

그런데 본 협회의 “자연보존”지는 1975년 8월 26일 등록이 되었으나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의 “자연보호”지는 3년 뒤인 1978년 6월 5일에 등록이 되었으니 본 협회 계간지가 3년 앞서 정부 등록물이 되었으므로 그 역사가 더 오래인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본 협회 “자연보존”지의 경우, 초기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읽을거리가 많았었다. 회원 역시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이르렀고 회비 납부실적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전문성이 가미된 글, 학술적 성격이 강한 내용을 게재하다보니 일반인들의 눈에서 보면 다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일반회원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교수, 학자,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로 대체되면서 대중화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 결과 회원은 주로 교수와 전문가 중심의 협회로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회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의 조직은 본 협회의 조직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 조직으로 탈바꿈을 했다. 총재 이하 부총재 11여명, 상임이사 및 이사 32명, 고문 4명, 자문위원 10명, 각 분야 위원장 및 부위원장 106명 및 각 시도 회장 16명 등 규모면에서 보면 본 협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크다.

그리고 본 협회는 주로 자연자원 조사인 학술연구와 교육을,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대국민 교육과 홍보 쪽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양 협회 모두 교육과 홍보는 물론 학술조사나 용역사업까지 하는 서로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으니 서로 역할 분담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본 협회가 반성해야 할 점은 너무 학자 중심의 협회, 학술적 성격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회원이 약 1,500여명이 된다고지만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자연보존”지가 계절별로 나오고 있으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의견이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

그동안 “자연보존”지에는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보존의 국제적 동향, 환경문제 등 시대의 흐름과 배경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게재하였고 협회 나름대로 전통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해도 좋겠다.

그러나 국민의 홍보물로, 계몽지의 성격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자층을 넓혀야 하겠다. 배포는 주로 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각 기관, 각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학교,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은행, 대형 병원, 우체국의 책꽂이에 이르기 까지 그 배포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읽기에 부담이 적은 내용일수록 좋겠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감명을 받아 스스로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다. 본 협회 본연의 사업인 종합학술조사연구보고서, 자연보호연구보고서, 생물상연구와 같은 학술보고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령 150호에 이르기까지 똑 같은 체제로 출간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겠으나, 본 협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걸맞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동종의 잡지를 보면 비교가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독자들이 외면하는 잡

지는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넷째 “자연보존”지 1968년 12월 30일 창간호에서 부터 2010년 가을 지령 150호에 이르기까지의 게재되었던 내용 중 일반 국민들이 읽고 자연에 대한 인식, 자연 사랑을 고취할 수 있는 읽기 쉬운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제 23대 및 제 24대 류재근 회장님께서 2007년부터 “재미있는 동·식물 이야기”란 소책자를 출간하여 자연에 숨어있는 동식물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 준 것은 본 협회에서 해야 할 일로 늦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 끝마무리

1980년대 이후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의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는 “Tipping Point(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극적인 순간)가 멀지 않았다. 생태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350 ppm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수면이 급속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This is the last chance)”라고 경고했다.

나는 1970년대 유행했던 어떤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것들”이란 노래를 기억한다. 이 노래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마리 라포레(Marie Laforet)의 “Mary Hamilton”이라는 노래를 번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들어있다.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음--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이 노랫말의 “모든 생물이 사라진 숲, 때가 되면 이들 숲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게 될 자연”을 상상하면 슬퍼진다. 숲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이 사라져 버리면 과연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개발논리가 환경논리를 우선하고 있는 이때 지구온난화란 또 다른 지구 생태계의 압박 요인이 발생함으로서 자연생태계는 이중고의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전 지구적, 환경적인 과도기에 본 협회의 사업인 자연생태계 조사와 연구에 전력을 쏟아 생물의 삶터 살리기는 물론, 특히 국민의 홍보지이며 계몽지인 “자연보존”지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큰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